

저소득층 조손가정 대상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

곽윤정 *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 Edu-care program for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ies

Kwak, Yun Jung

본 연구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일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 10인과 손자녀 아동 10인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에듀케어 프로그램 실시 후 조부모는 학습 지도 및 양육 기술의 향상과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하였으며, 손자녀의 경우 학습역량 및 학습동기의 증진과 함께 진로를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요구에 맞춘 통합 지원 프로그램, 수준별 교육과정, 인적 자원의 지지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주제어: 저소득층 조손가정, 에듀케어 프로그램, 질적 연구

*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E-mail: flow2003@naver.com)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개별 가정 및 가족의 해체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즉,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빈곤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이혼, 가출, 아동 유기 등의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새로운 가정 형태가 등장하고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류재중, 조아미, 2007)로서 과거에는 손자녀가 고아가 되었을 경우에만 조부모가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이혼, 가출, 재혼,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면서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양육을 떠안게 되면서 형성된 가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손가정의 구성원인 노년기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는 대부분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거나 상실된 상태(류정희, 2010)이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 줄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류정희, 2010; 박민자, 2010)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겪게 되는 한계 및 난관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노년기에 부모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강 악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이다(류정희, 2010; 정은미, 2010). 특히, 저소득층의 조부모의 경우에는 극도로 제한적인 자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는 연구(김문정, 2006; 이영숙, 2010; 정정신 외, 2005)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소득층 조부모는 손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난관과 심리적 고통의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이 결여되어 있으며(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우울감, 위축감 등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정은미, 2010; 최혜경, 2002)고 한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손자녀 역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손자녀들은 조부모와 살기 전에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조부모와 재결합하여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겪으면서 분노, 불안, 원망 등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대인관계의 문제를 나타내며, 사회적 기술이 낮다(주소희 외, 2009)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습에도 영향을 주어 부적응, 미숙한 상호작용, 학습결손 등으로 나타난다(김우진, 2007). 또한, 조부모가 양육 기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학습지도나 의사소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성 및 인지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상실하는(류정희, 2010; 정은미, 2010)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 측면의 능력과 기술이 감퇴하는 노년기의 양육자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환경적 불리함이 발생하고, 아동의 잠재능력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낮은 학업성취와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및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박현선, 2007)하면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대한 대처로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의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박귀엽, 조희순, 2006). 특히,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이 주축이 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결손을 보완,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 및 보육정책 변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곽윤정, 2011). 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위탁운영을 하는 청소년공부방 형태로 출발하여 방과후 교실의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윤혜순, 2005).

그렇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낙후, 공간 부족, 재정 불안 등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조부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은미, 2010).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김홍미, 강영숙, 2007; 서혜석, 2005)은 조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에 초점이 있으며, 8회기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결국, 저소득층 조손가정에서 주요한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는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개입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빈곤 격차의 감소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되면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도 변화하였다(최선희 외, 2010). 즉, 물리적인 수준의 결핍에 대한 보완의 형태에서 대상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역량 증진, 심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박탈감, 심리적 갈등과 욕구를 충족하여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는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조손가정은 서구사회의 조손가정과 달리 혈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가족주의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정은미, 2010)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 체제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손자녀를 장기적으로 돌보고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양육자인 조부모가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정보를 제공받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가족보존서비스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변화와 활성화에 따라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제한적인 방향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에듀케어 프로그램 실태조사나 학생, 학부모 등 주체별 만족도 조사(류방란, 최상근, 2004; 윤혜순, 2005),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 국외의 사례 소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윤혜순, 2005; 최영주, 2004).

그러나 프로그램의 주 대상인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자녀인 아동과 양육자인 조부모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저소득층 조손가정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검증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자인 조부모와

손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한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지표보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삶에 대한 심층 면담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와 아동은 장기간 결손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화된 영역을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적 과정 보다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자와 아동이 겪고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 경험을 맥락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와 아동에게 필요한 조건과 경험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방안 등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양육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손자녀가 학습장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 조부 혹은 조모 10명과 그들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 10명이다.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일반화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례를 확보하는 양적 연구와 상관없이 연구 주제와 가장 밀접한 맥락에 있는 소수의 사례가 의미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사례 선택(ideal case selection)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손가정 중 수도권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조부 혹은 조모 중 한 명만 생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였다.

양육자 조부모 10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7명이며, 연령은 6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에 해당한다. 손자녀인 아동 10명 중 남자는 6명, 여자는 4명이고, 연령은 9-11세에 해당한다. 각 연구 대상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 동				양육자(조부모)			
구분	성별	나이	면담횟수	구분	성별	나이	면담횟수
참여아1	남	10	5	참여자1	남	69	5
참여아2	남	9	4	참여자2	여	73	4
참여아3	남	10	6	참여자3	남	70	6
참여아4	남	11	5	참여자4	여	78	5
참여아5	남	11	7	참여자5	여	66	7
참여아6	남	9	9	참여자6	여	68	9
참여아7	여	11	10	참여자7	남	71	10
참여아8	여	10	8	참여자8	여	69	8
참여아9	여	10	6	참여자9	남	77	6
참여아10	여	9	5	참여자10	여	67	5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1) 에듀케어 프로그램(실험처치)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조부모와 손자녀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는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조부모의 경우, 양육자로서의 고충 상담과 양육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자녀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상담 및 학습지도로 구성되었다.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가가 담당하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지도 교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전담교사가 담당한다.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은 양육자로서 조부모가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손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보육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양육자의 심리적 상처와 현재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감 등의 부적응적 정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손자녀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적응적인 발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양육에 대한 정보 및 보육 방법 등을 제공하였다. 저소득층 조손가정 에듀케어 프로그램 중 양육자 프로그램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1-2회 정도 전문상담가가 사전에 시간을 정하여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1회기에 약 40분 정도 진행되었다.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결손된 학습영역에 대한 학습지도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영역에 대한 학습지도는 국어, 수학에서의 핵심내용과 지적 기술을 수준별로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어는 어휘능력, 내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 내용의 추리와 상상적 사고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난이도별로 교과서의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며, 수학은 연산, 도형, 명제, 응용 등으로 단계를 구성하여 아동이 학습할 내용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저소득층 조손가정 에듀케어 프로그램 중 아동 프로그램은 양육자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기 즉,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습지도는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실시하였으며, 매주 2회기씩 20-30분 정도 진행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은 아동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심리 문제를 호소할 때 전문상담

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호소문제는 또래 관계, 학습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상담 회기는 약 5-6회기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별 상담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담 교사와 전문상담가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전문상담자격증을 취득한 박사과정 3인과 손자녀 아동의 수준별 학습을 지도할 방과후 수업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3인이다.

교사 교육의 내용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와 손자녀 아동의 발달적 특징, 학습지도방법, 교과별 학습에 필요한 핵심내용 및 기술에 대한 안내, 상담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교육은 2013년 6월부터 매주 2회기씩 3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한 회기 당 교사교육시간은 약 75분 정도였다.

2) 심층면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심층면담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이 시작된 시점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개시된 시점과 동일하며,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순환적 전개방식으로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와 지속적인 심층면담을 반복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문상담자격증을 취득한 박사과정 3인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와 아동이 인식하는 변화에 대하여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열린 형태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개별 거주지에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횟수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여건에 따라 최소 4회에서 10회에 이르며,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면담 후 즉시 녹취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면담의 질문 내용을 정하는 순환적 반복을 시행하였다.

3. 자료 분석

환원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양적 연구의 관점과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문헌자료와 면담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및 개념적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는 귀납적 체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문헌 자료의 내용과 면담 자료를 필사,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손자녀가 학교생활 등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 등에 대해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 절차에 따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딩 절차는 개방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개방 코딩은 심층 면담 내용을 면밀히 읽어가면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에 개념화하여 명명하는 과정으로서 (Strauss & Cobin, 1998) 5개월 동안 수행한 면담 자료마다 개념화하여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자료에서 명명한 범주를 속성과 차원 수준에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Strauss & Cobin, 1998)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담 자료를 조부모와 손자

너로 대상별 구분을 한 후 명명한 개념들을 나열하여 범주화할 도표로 작성하였다. 선택적 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시키는 과정으로서(Strauss & Cobin, 1998) 조부모와 손자녀 각각의 축코딩 도표에서 분석된 범주들을 통합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전의 경험과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라는 축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양적 연구에서만뿐이나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요시하는데, 이를 진실성(trustworthiness)이라고 한다(Guba, 1981).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편견이 개입되어 연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거로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간 검토,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타당성과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구성원 간 검토는 수집된 자료와 도출된 해석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아가 점검하는 것으로(Guba, 1981),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인 조부모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면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후에 확인하고, 부정확한 의미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는 검토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동료간 협의는 연구자의 주관에 좌우되어 연구결과를 해석하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1인,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2인, 그리고 연구자가 원 자료와 분석 내용 및 해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범주화의 분류 기준과 코드 등을 확인하였다.

삼각검증법을 위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실태와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심리사회적 문제, 손자녀의 학습결손의 정도 등에 대한 문헌 자료와 연구 참여자가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의 관찰 내용을 적용, 비교하면서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Ⅲ. 결과 및 해석

1.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겪는 어려움

1)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양육자로서 겪는 어려움

(1) 손자녀 학습 지도의 어려움

정부차원 저소득층 조손가정 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대부분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모역할을 하는 노년기의 조부모의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손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지게 된다(신혜섭, 2007; 최해경, 2002). 이와 같은 조부모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손자녀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양육자로서 실제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자 조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고충과 고민 등을 알아보고, 양육자로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 등을 다루었다.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가 양육자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손자녀의 학습과 학교 공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에 다닌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학교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어릴 때부터 먹고 사는 게 중해서 학교는 땡기다 말았지. 글씨나 겨우겨우 읽지, 내가 뭘 알겠어. 그리고 요새 듣고는 금방 몰라. 뒤 돌아서면 내 머리에 없어. 전에도 까막눈이었는데, 이젠 알고 있는 것도 가물가물해. ○○(손녀)가 뭐 물어봐도 당채 무슨 말인지 몰라...(중략)...내가 이러니 애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것도 명구스러워” (참여자 2)

“내가 뭘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애도 자꾸 멍해 가는 거 같애, 요새는. 내가 어디 가서 들어본 게 있나, 배워본 게 있나” (참여자 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발달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거나 손자녀의 어려운 질문 등에 대답해 주는 것을 가장 큰 고민이라는 선행연구(주봉관, 2000)와 일치한다. 조부모가 도덕적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모가 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가정의 특성(한경희, 1988)에 비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은 모든 역할을 조부모가 수행해야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2) 양육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상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대부분 우울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비 나가버리고 저거한테 이제 나 하나뿐인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야지. 평생 죽어라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중략)...어떨 때보면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하지. 근데 또 뒤돌아서면 나 죽으면 저거 어쩌나,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나 싶으니까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또 욕을 하고 공부하라고 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참여자 10)

“혼자 있을 때는 별 생각 다 해. 제일 괴심한 건 집나간 저것들(아들, 며느리)이지. 저 어린 걸 여기서 내팽개치고 그들이 천벌을 받지. 아주 어쩔 땐 어디 박혔나 찾아내서 때려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죽하면 했겠나 싶고 하고..” (참여자 7)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빈곤과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박탈감,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며(오경석, 2010), 자녀의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면서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신혜섭, 2007; 오경석,

2010)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면서 손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상당하며, 손자녀의 진로,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야 덜 먹고, 아파도 참으면 그만인데, 자는 번듯하게 사람구실하려면 뭐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들은 몇 개씩 학원을 보낸다 카는데, 저는 학교 밖에 더 있습니까. 저거 키울 일이 캄캄합니다” (참여자 6)

“이제 죽지도 모른다. 저거 밥이나 해 먹겠노? 나는 그냥 눈 딱 감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저 불쌍한 거 생각하면 내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기라..” (참여자 3)

조부모들은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고(권인수, 2001, 최해경, 2002), 손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해도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는데 고전하게 된다(신혜섭, 2007). 뿐만 아니라 평생을 겪어 온 가난이 계속해서 손자녀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절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한경희, 198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양육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조부모들에게 누적되고 이것이 결국 손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인 조부모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교육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것이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에 대한 선행연구(김혜선, 2004; 신혜섭, 2007; 옥경희, 2005)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조부모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손자녀의 어려움

(1) 낮은 학업성취 및 학업역량

부모의 양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낮은 학습능력과 인지기능(류정희, 2010; 신혜섭, 2007)과 부적응적인 사회·정서적 문제(정은미, 2010; Pecora et al., 1999)를 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사회구조적 취약성과 빈곤으로 누릴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저소득층 조손가정 손자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보았을 때, 연령대에 적합한 학습역량을 갖추지 못해 학업성취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반에서 구구단 못 외우는 애는 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맨날 너무터 해봐 하는데, 안돼요. 구구단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돼요” (참여자 2)

“단원평가 보고 틀린 거 오답노트 해오는게 숙젠데요, 나는 다 틀려서 다 써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안 할 때가 많아요” (참여아 8)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부모의 학습지도와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의 또래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장면을 경험해 보지 못하여 문자언어 및 수학적 상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와 관심, 현저히 짧은 학습시간 등 학습태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비해 부족한 학습역량은 학습태도, 수업 자세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업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다가 엎드려 자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애들은 학원 다니니까 다 배웠나봐요. 대답도 되게 잘하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헤매요. 근데 모른다고 못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들어요. 그러다 딴 생각나고요...(중략)...잘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못할 걸요” (참여아 4)

“할머니는 밥해주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구요. 맨날 숙제 안하라고 욕하는데..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니가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그러다가 숙제 못해가거든요. 숙제 못해가면 또 못 알아듣고..계속 모르고...그래요” (참여아 6)

저소득층 조손가정 양육자인 조부모의 역할은 대체로 ‘보호적 배려자’로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손자녀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위로하는데 주력하며, 교육적 지원이나 기회제공 등의 역할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손가족의 양육자인 조부모는 대체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양육을 부담하기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부모와 같은 학습 및 교육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은 학습장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과 결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이미영, 2007)와 일치한다.

(2) 부적응적이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들은 조부모에게 양육되기 전에 부모의 사망, 이혼, 불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서 문제를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류정희, 2010). 또한, 양육에 대한 준비 없이 부모 역할을 떠안게 된 조부모들은 청소년의 발달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과 지지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정은미, 2010).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분노를 많이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나를 보러 오지도 않아요. 할머니한테 버리고 갔어요. 엄마, 아빠하고 살 때도 맨날 욕하고 싸우니까 차라리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중략)...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데, (할머니가) 죽으면 난 이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참여자 7)

“이렇게 (버리고) 갈거면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놓고, 버리는 것도 맘대로고,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어요. 할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돈 잡아먹는 돈귀신이라고 하고...” (참여자 4)

학습역량의 부족과 심리적인 불안이 더해지면서 조손가정의 아동은 학교에서도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역량의 부족과 부적절한 학습태도로 인해 교사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기 보다는 소외되고 꾸중을 많이 들었으며, 친구들과도 적절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반 애들은 닌텐도가 다 있는데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 없어? 그러면 집에 있어 그러는데, 그러면 저보고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있냐면서 뺨친다고 놀려요. 그러면 저도 열받아서 때리게 되고요...(중략)...애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도 잘 안하고요, 할 말도 없어요. 어쩔 땐 속에서 성질이 나오. 그래서 막 욱해준 적도 있어요” (참여자 3)

“선생님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보면 알아요...(중략)...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오는데, 전 안 그러니까요. 제가 애들 때리거나 욱하면 소리는 지르세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칭찬 못 받아요” (참여자 6)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은 사회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신을 낙인하고, 가족해체의 결과물로 조손가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김진숙, 2009) 부적응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들은 학습장면에서의 학습역량, 학습태도에서 또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도 부적응적이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해체의 경험, 경제적 빈곤, 조부모의 양육지원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나타난 변화

1) 에듀케어 프로그램 후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의 변화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조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과 학습지도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조부모의 정서적 문제와 고민을 해소하여 손자녀의 발달에 도움을 주면서 가족기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에게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 조

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손자녀의 학습과 양육에 대한 정보 습득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인식하는 어려움은 손자녀의 학습발달과 지도, 그리고 손자녀의 양육에 있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조부모에게 양육 및 손자녀의 발달 및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취할 수 있는 출처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방법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부모가 인식하는 학습 지도와 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케어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 오신 다음부터는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애. 내가 뭘 알아야 저거 제대로 가르치는데, 이젠 그 표(바우처)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해서 학습선생님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도...(중략)...어디다 전화해야 하는지 아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데...” (참여자 10)

“내 어느 날인가는 아랑 내랑 그냥 죽는게 낫겠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리 사는 게 사는 거가 싫어 독한 마음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자 그런 소리 안할라고 합니다...(중략)...(에듀케어 프로그램) 선생님한테 내 속엿 말 쏟아내고 나니까 좀 낫기도 하고요, 아 공부시키는 법도 알려주면서 내한테 일러주신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5)

저소득층 조손가정에서 조부모는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중 손자녀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정신, 이현경, 박희숙, 2005).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학교 공부나 학습 지도를 조부모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손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공받음으로써 손자녀의 학습발달과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감정과 심리적인 안정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손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방법과 지도를 교육받음으로써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안 그러더니 버럭 화를 내고, 내가 뭐라고만 하면 대답도 않고 그래서 나도 열이 나 욕을 막 하고 그랬구만. 이제 알았어. (에듀케어 프로그램) 선생님이 알려주드만. 그 때 나이 아이들이 불뚝불뚝 그런다고..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라, 재들을 이해하려면 어찌 해라 알려 준대로 하니까 아주 좋아졌어. 그래서 나도 이제 욕도 안해. 욕하는 게 재한테 얼마나 나쁜지 나도 이젠 알아” (참여자 7)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저 젊은 선생님한테 내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니까. 늙어도 배워야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공부를 직접은 못 가르쳐도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까...(중략)...애 부모들이 못 키운다고 나한테 버리고 갔어도 내가 아주 보란듯이 키울거야, 아주...” (참여자 4)

손자녀가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변화와 정서적 특성에 당황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편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달적 관점에서 손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양육자로서 손자녀의 지도와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양육방법을 습득하게 된 조부모들의 변화된 태도는 손자녀의 정서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한테 요새 욱 잘 안 먹어요. 전에는 할머니 다리 아프고, 늦게 놀다 들어가면 계속 욱했거든요. 요새 할머니 칭찬 진짜 많이 해주요. 공부한다고 하면 막 좋아해요. 할머니 좋아하니까 저도 좋죠, 뭐” (참여자 5)

“할머니가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요. 처음엔 좀 찢기도 했는데, 솔직히 좋아요. 할머니도 어색해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습관이 된 거 같아요. 안 듣고 지나가면 할머니 잊어버렸나 언제 하나 해요” (참여자 10)

경제적·환경적 열악함으로 인해 학습을 비롯한 여러 발달 측면에서 뒤떨어졌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된 교사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학습의 촉진자가 되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격려,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지지자라는 사회적 인간망이 되어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조부모가 얻게 된 심리적·정서적 안정

선행연구(신혜섭, 2007; 최해경, 2002)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빈곤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지받음으로써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가정의 노인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의 조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오경석, 2010; 최해경, 2002)에 이른다. 결국, 저소득층 조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상담은 심리적 지지를 통해 그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정은미, 2010; 최해경, 2002; Smith, 1994)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를 받은 조부모 양육자가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인 조부모 역시 에듀케어 프로그램 이전에는 손자녀의 지도와 양육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손자녀 양육이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위축되고 우울감을 느끼는 등 양육자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상당한 편이었다.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과 마찬가지로 조부모 역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변화와 양육에 필요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열악한 경제적, 신체적 상태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떠안겨 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태가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정서 상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내 심정 알아주겠어. 내가 저 어린 거하고 굶는지 사는지 말 한마디 따숨게 해주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었다...(중략)... (에듀케어 프로그램)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오는데 그 양반한테 다 쏟아내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우리 애기한테 내가 해줄게 생기니까 힘이 납니다” (참여자 3)

“내 새끼지만, 죽을 날만 받아놓은 지어미한테 지 새끼 버리고 간 놈이 사람새끼처럼 생각이 안들더라구...(중략) 자다가도 그 놈 생각하면.. 지금은 그러진 않지. 그 놈도 사람새끼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해. 그러니까 내 맘도 편하고” (참여자 6)

가족자원 및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가족 간의 도움과 유대가 약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지 못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Kelly, Whiteley, Sipe, & Yorker, 2000). 이와 같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상담은 그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지망의 기능을 하여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냥 힘들다, 힘들다 생각만 하니까 힘든데, 저 양반(에듀케어 프로그램 상담자)이 투닥투닥해 주니까 내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 그냥 원망이 많아서 저 어린 거 한테도 못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럴라고...얼마나 이뻐, 저 어린 것이...잘 키워야지 내가...” (참여자 4)

“내 평생 살면서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언제 있었노. 저거 내 핏줄이라 키우는 게 당연해도, 누가 수고한다고, 나같은 할마시보고 칭찬같은 거 해준 적이 있나 말이다. 내 그 날 많이 울었다” (참여자 1)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조손가정 양육자인 조부모의 변화를 이끈 맥락적 조건의 핵심은 그들을 유능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지해주는 인적 자원에 있었다. 정서적인 고통에 공감하고, 조부모가 절감하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육 및 학습지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인적 자원의 도움을 통해 그들은 실질적인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2) 에듀케어 프로그램 후 저소득층 조손가정 손자녀의 변화

저소득층 조손가정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환경적 결손과 어려움에 처한 조손가정 아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즉, 5개월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손가정 아동의 당면 문제인 학습과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적응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적 함의가 있다. 실제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손가정 아동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탐색은 바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조손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5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1) 학습역량과 학습동기의 증진

무엇보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 등과 같은 학습역량과 학습동기의 증진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의 수업 내용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공부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구구단게임도 할 수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 반 애들하고 구구단을 외자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이제 구구단 잘 외우고, 금방금방 빨리해요...(중략)....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이거 하기 전에는 애들하고 그런 게임해도 전 안했거든요. 잘 못하니깐요. 그런데, 이젠 내가 먼저 하자고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참여자 9)

“계산할 때 손으로 안 해요. 더하기 빼기요 손가락 갖고 했거든요. 그럼, 짝이 놀러요. 그래서 열받은 적도 있어요. 요샌 손으로 안 해요..(중략)..그냥 안하게 됐어요. 자꾸 반복이 중요하대요, 선생님이” (참여자 7)

학습결손이 보완되고 교과와 내용을 이해하는 등 학습역량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조손가정 아동의 특성으로 나타났던 심리적 위축감에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자신감을 느끼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도 증진되었다.

“신기해요. 제가 영어책을 읽고 쓸 수 있다는게요. 학원다니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중략).. 처음에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선생님이 시키는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짜증났는데요, 저 에이비씨부터 하니깐 언제 하나 싶었는데, 이제 책도 읽을 수 있대니까요” (참여자 7)

“재능이라는 말 알죠? 재능이 지금도 뭔지 잘 모르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무슨 재능이 있대요. 창의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5)

열악한 양육환경과 제한된 교육 및 학습기회에 놓여 있었던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이 자신의 역량과 진도에 맞춘 수준별 학습을 수행하면서 교과목에 대한 이해능력, 학습역량이 길러지고, 이러한 역량의 변화는 태도와 정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진로를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의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은 또래에 비해 학습역량과 학습태도의 문제를 보이면서 현저한 학습결손을 보였으며, 사회성, 학교 적응 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낮은 수준에 성취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상실된 채 소외감과 위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동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정도로 학습역량의 향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기간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수준별 학습 지도를 통해 아동들은 수업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공부가 재미있다’는 내적

동기, 자신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까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공부 못하는 거고, 그냥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나도 하니까 되니까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학교 가는 것도 괜찮고요. 할머니도 좋아하니까 더 좋아요...(중략)...이제 공부 잘해서 할머니한테 돈도 많이 드리고 돈 잘 버는 사람될거예요” (참여자 8)

“(에듀케어 프로그램) 선생님이 제가 머리가 좋다고 했을 때 뻥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공부시키려고요. 근데, 진짜 제가 자꾸 문제를 푸니까 지금은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중략)...어차피 이제 제가 크면 돈도 벌고, 할머니도 돌봐 드려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는 직장에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려고요. 저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좋아요” (참여자 2)

학습결손으로 인해 교실 수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학교생활과 학습장면에서의 반복된 좌절과 실패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학습지원을 통해 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별개로 여겨졌던 공부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학습과 미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조건이자 경험으로 선생님의 관심과 지지, 칭찬, 눈맞춤 등의 외적 강화를 들 수 있다. 학습결손을 보이는 저소득층 조손가정 손자녀의 학습 수준에 맞춰 개별지도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교사와 손자녀 간의 라포(rapport)는 학습역량을 변화시키는 환경적 맥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선생님 되게 재미있어요. 개그맨 흉내도 잘 내고 제가 못 알아들으면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칭찬도 많이 해주시니까 좋고요.. 화요일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참여자 3)

“선생님이 되게 좋은게요. 저 풀 때까지 설명을 되게 잘 해줘요. 자꾸 질문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아주 잘한 날은 상도 주거든요. 그럼 기분 짱나요” (참여자 4)

가장 중요한 양육자인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양육자로부터 제대로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교사의 지지와 관심은 강력한 학습의 유인가이자 교육환경으로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

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은 가족 해체와 재결합으로 형성된 가족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능력 및 삶의 기술이 감퇴하는 노년기의 양육자인 조부모는 건강 문제(류정희, 2010; 정은미, 2010; 최혜경, 2002), 양육스트레스(김문정, 2006; 이영숙, 2010; 정정신 외, 2005), 양육 기술의 부족(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손자녀 역시 정서 문제 및 낮은 사회성(주소희 외, 2009), 학습결손과 학습문제(김우진, 2007), 낮은 사회적 유능감(박현신, 2007)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지만, 대체로 손자녀 아동의 학습에 주로 초점이 있으며,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양육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 대상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습과 교육을 지원하여 발달의 촉진과 더불어 양육자에게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자로서 갖고 있는 갈등과 고민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어떤 변화와 효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의 조건과 경험을 구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도출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종합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양육자로서 인식하는 어려움은 손자녀 학습발달과 지도에서의 문제와 양육자로서 심리적인 불안정 및 양육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적 측면을 보살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인식하는 어려움은 낮은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과 함께 부적응적이고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학습 기회와 학습 결손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가 떨어진 상태이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학교에서 교사,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부모와 손자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부모의 경우,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낙관적인 관점으로 변화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술과 정보 습득 능력이 향상되면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이미영, 2007; 최혜경, 2006)을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손자녀 아동은 학습지도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학습지도와 더불어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적응 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자녀의 학습지도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양육자로서 조부모는 교육적 지원에의 욕구가 강하다는 연구결과(신혜섭, 2007; 정정신 외, 2005)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교

육적 지원자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소외되었던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게 되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자녀의 경우, 학습역량 및 학습동기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속된 학습결손으로 인해 또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학습역량에서 발달을 보였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손자녀 아동 스스로 느끼면서 자아효능감도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손자녀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위하여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저소득층 조손가정 조부모와 손자녀의 변화를 이끈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조건과 경험은 양육자와 아동 모두에게 제공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의 지지와 지원, 개별화된 교육내용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류정희, 2010; 박민자, 2010)를 통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양육자인 조부모와 손자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통합적 형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정은미, 2010).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양육자와 아동에게 동시에 제공되며, 대상별로 가장 절실한 요구를 중심으로 적절한 인적 자원이 지지와 조력함으로써 양육자와 아동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의논상대 유무가 조손가정 조부모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해경, 2002)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에듀케어 프로그램의 인적 자원의 지지와 관심, 조력이 그들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손자녀의 경우, 오랫동안 축적된 학습결손에 대하여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역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고 손자녀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육지원 방법에 대해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양육자의 발달 상태와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후의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일반화에 근접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 분석 방법과 더불어 실증적인 경험적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윤정 (2011).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습능력과 적응능력에 대한 에듀케어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학 연구**, 18(2), 171-191.
- 권인수 (200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문정 (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건 (2008).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존중감

- 에 미치는 효과. 광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우진 (2007). **조손가족과 복지대책**.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판부.
- 김진숙 (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8(2), 85-117.
- 김홍미, 강영숙 (2007). 조손가정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117-383.
- 류방란, 최상근 (200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내 보육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재중, 조아미 (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 류정희 (2010).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특성과 그들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질적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태호 (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 박귀엽, 조희숙 (2006).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사회적 증진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논총**, 15(2), 163-176.
- 박민자 (2010). **조손가정의 가족복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과 출판부.
- 박정란 (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 (2007).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 서혜석 (2005).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1(2), 125-146.
- 신혜섭 (2007).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특징과 실천현장의 프로그램.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6, 83-93.
- 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65-84.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윤혜순 (2005).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교생의 방과후교실(에듀케어) 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100-119.
- 이미영 (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 201-230.
- 이영숙 (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 의도에 미치는 돌봄경험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4-195.
- 이종남 (2011). ‘찾아가는 맞춤형 정서·학습지원 서비스’에 관한 일 연구: 충북 K대학의 청년사업단 사례.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2), 101-113.
- 정순상 (2008).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및 조손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아란, 김영철 (2014). 조손가정의 격대교육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2), 103-132.

- 정은미 (2010).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부모교육연구**, 7(1), 5-21.
- 정정신, 이현경, 박희숙 (2005). 저소득층 조손가정 유아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수행도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0(3), 317-337.
- 주봉관 (2000).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30, 97-131.
- 최선희, 김희수, 양혜원, 이근영, 최지현 (2010). **송파구 멘토링 사업 성과 평가 조사 연구**. 삼전 종합사회복지관.
- 최영주 (2004).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3), 207-222.
- 최해경 (2006).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37-58.
- 한경희 (1988).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할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29(2), 75-92.
- Kelley, S. J., Whiteley, D.,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 Plotnick, R. D.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mith, A. (1994).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war against crack-cocaine epidemic. *Arete*, 19(1), 22-36.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aily life of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identify the effects of the Edu-Care program.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en grandparents and ten grand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adjustment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for about five month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grandparents perceived that their skills for educating and raising children were improved and that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stability. Meanwhile, the grandchildren perceived that their learning competency and motivation for learning were enhanced and recognized why learning is necessary for their career.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nditions and experiences needed for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ies are an integrative support program, a differentiated curriculum, and aid and care provided by human resources.

▶*Key Words* :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y, Edu-Care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논문투고 2015. 02. 15.
수정원고접수 2015. 03. 31.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